

수출입은행, 파나마 코브레 구리광산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

- 30년간 연간 5만 1,000톤의 구리 확보 기대
- 니카라과 재무부와 EDCF 2,300만 달러 지원계약도 체결

- 한국수출입은행(www.koreaexim.go.kr, 은행장 김동수)은 6월 29일 (현지시간) 파나마시티에서 캐나다 자원개발 전문기업 인멧(Inmet), 한국광물자원공사/LS니꼬동제련 컨소시엄 및 수출보험공사와 “파나마 코브레 구리 광산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”을 체결했다.

(사진 있음)

※ 캐나다 인멧은 코브레 구리광산의 지분을 100% 보유하고 있으며, 한국 컨소시엄(한국광물자원공사/LS니꼬동제련)은 이 광산의 지분 20%를 취득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하고 있다.

- 이번 업무협약은 코브레 구리 광산 공동개발을 위한 ▲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의 금융지원 ▲자원개발 기업과 금융기관간 정보교환 및 상호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.
- 코브레 광산은 총 매장량 21억톤 규모의 파나마 최대 구리광산으로 한국컨소시엄은 코브레 광산에서 연간 5만1,000톤 규모의 구리를 2015년부터 30년간 생산하여 국내로 들여올 계획이다.
- 전략 광물인 구리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, 2009년 수입량은 100만톤이었다.
-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“이번 협약 체결로 파나마 코브레 광산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”며 “구리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- 한편, 김동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은 6월 28일(현지시간) 파나마시티에서 알베르토 호세 게바라 오브레곤 (Alberto José Guevara Obregón) 니카라과 재무부 장관과 니카라과 정부가 추진하는 “직업훈련소 사업”에 대외경제협력기금 (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: EDCF) 2,300만 달러를 지원키로 하는 차관공여계약을 체결했다.
- ‘직업훈련소 사업’은 니카라과 전역의 9개 직업훈련소를 개보수하고, 교육기자재를 공급하면서 교과과정 개발 및 직업훈련소 교직원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.

붙임 : 파나마 코브레 구리광산 개발사업 개요


문의	자원금융부 광물금융팀장	천명욱 (☎02-3779-6447)
	경협사업부 중남미·중동팀장	김태수 (☎02-3779-6580)
	홍보실	공보팀장 신유근 (☎02-3779-6065)

(붙임)

파나마 코브레 구리광산 개발사업 개요

□ 사업 개요

- 캐나다 Inmet社は 파나마 콜론州 소재 코브레 구리광산 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, 한국컨소시엄(LS니꼬동제련, 한국광물자원공사)은 동 광산 지분 20% 취득을 위한 옵션을 보유중임.

구 분	내 용
위 치	<p>파나마 중부 Colon州내(파나마시티 서쪽 약 120km)</p> 
사 업 단 계	개발단계(2015년 생산 예정)
지 분	캐나다 Inmet社 100%
총 사 업 비	U\$5,000백만
가 채 매 장 량	약 2,143백만톤(노천광산)
생 산 계 획	구리 254천톤/년
가 행 년 수	30년 이상